

주님의 회복 안의 네 가지 큰 기둥

(목요일—오전 1부 집회)

메시지 1

진리와 생명과 교회와 복음

성경: 요 18:37, 11:25, 14:6, 딤펢전 3:15-16, 엡 1:13, 골 1:5

I. 주님의 회복은 주로 네 기둥, 곧 진리와 생명과 교회와 복음 위에 세워진다—엡 1:13, 4:18, 5:23-25, 29, 32, 6:15.

II. 주님의 회복 안의 첫 번째 큰 기둥은 진리이다—요 18:37.

- A. 주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신성한 진리들의 회복이다—딤펢후 3:16.
- B. 주님의 말씀, 곧 그분의 진리는 성경 안에 있지만, 성경은 합당한 해석을 필요로 한다—딤펢후 2:15.
- C. 진리는 그 자체가 절대적이며, 우리는 반드시 진리에 대해 절대적이어야 한다—요이 1-2, 4, 요삼 3-4, 7-8.
- D. 주님의 회복의 표준은 우리가 제시하는 진리의 표준에 달려 있다. 진리들이 척도이고 표준이다—요 18:37.
- E.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교회를 건축할지는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진리를 가르치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교회를 산출하고 교회가 존속하도록 돕고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살아 있는 진리가 절박하게 필요하다—딤펢전 3:15.
- F. 우리는 진리가 우리 안으로 넣어지고 우리 존재 안으로 조성되게 해야 한다—요일 1:8, 2:4, 요이 1-2, 요삼 3-4.
 - 1. 진리로 조성되는 것은 신성한 계시의 내재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넣어져 우리의 조성성분, 우리의 내재적인 존재, 우리의 유기적인 조성이 되게 하는 것이다—요 17:17.
 - 2. 우리 안으로 조성된 견고한 진리는 우리 안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자양분이 된다—딤펢전 2:4, 살후 2:13.
- G. 진리가 우리 안으로 넣어지고 우리 존재 안으로 조성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의 풍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완결되심으로 성취하신 것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계 21:12상, 17.

III. 주님의 회복 안의 두 번째 큰 기둥은 생명이다—요 14:6, 11:25.

- A. 진리와 생명 모두 주님 자신이지만, 이 둘은 그분의 존재의 다른 두 방면이다—요 14:6.
 - 1. 진리는 외적인 정의와 설명이고, 생명은 내적이고 내재적인 내용이다—요 8:32, 11:25.
 - 2.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으로 계시지만, 생명의 체험을 위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설명이 진리이다—골 3:4, 1:5.
 - a. 우리가 이 설명에 따라 주님을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는다. 생명이신 주님을 체험하고 누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한다—요일 1:1-2, 5-6.
 - b. 생명이신 주님에 대한 체험은 진리이신 주님 안에 담겨 있다—요 14:6.

3. 우리가 진리에 대해 분명하지 않고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누릴 길이 없을 것이다—요 8:32, 11:25.

B. 주님은 그분의 교회가 진리이신 그분을 알고 생명이신 그분을 받아들이고 누리기를 원하신다. 교회의 내용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진리와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서 성장하시는 것이어야 한다—마 16:18, 딤펢전 2:4, 요 8:32, 10:10.

C. 생명은 우리 안으로 분배되시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삼일 하나님, 곧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생명의 체현이신 아들 하나님과 생명의 흐름이신 영 하나님이다—롬 8:2, 10, 6, 11, 요 5:26, 1:4, 요일 5:11-12, 계 22:1.

D. 생명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길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다스리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갈망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창 1:26, 2:9.

IV. 주님의 회복 안의 세 번째 큰 기둥은 교회이다—딤펢전 3:15-16.

A. 주님의 회복은 진리의 회복과 생명의 회복인데, 이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얻으시기 위한 것이다. 진리는 생명을 가져오고, 일단 우리가 생명을 얻으면 교회가 된다—요 18:37, 10:10, 고전 10:32.

B. 교회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집이다—딤펢전 3:15.

1.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 곧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신뢰하실 수 있는 곳이다—엡 2:21-22.

2.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아버지의 집, 곧 확대된, 우주적인,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합병체이다—요 14:2, 12:23, 13:31-32.

C. 교회는 진리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진리를 붙들어 주는 기반이다—딤펢전 3:15.

1.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진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신약에 계시된 참된 것들을 가리킨다—마 16:16, 18, 엡 5:32.

2. 진리를 지탱하는 기둥과 기둥을 붙들어 주는 기반으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의 진리, 곧 실재를 증언한다—골 2:2, 엡 3:4.

D. 교회는 하나님께서 단체적으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이다—딤펢전 3:15-16.

1.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먼저는 육체 안에 있는 개인적인 표현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딤펢전 3:16, 골 2:9, 요 1:1, 14.

2. 하나님은 육체 안에 있는 그분의 확대된 단체적인 표현으로서 교회 안에서 나타나신다—엡 2:19, 1:22-23.

3. 경건의 위대한 비밀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시도록 단체적인 하나님-사람을 산출하는 것이다—롬 8:3, 1:3-4, 엡 4:24.

V. 주님의 회복 안의 네 번째 큰 기둥은 복음이다—엡 1:13, 골 1:5.

A. 우리가 주님의 회복 안에서 전파하는 복음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높고, 가장 완전한 복음이다—롬 1:1, 3-4, 막 1:14-15, 행 20:24, 엡 3:8, 6:15, 고후 4:4.

B. 복음은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진리들을 포함한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복음이다—엡 1:13, 골 1:5.

1. 진리가 복음이고, 진리의 빛이 복음의 빛이다—막 1:1, 14-15, 요 8:12, 32.

2. 우리는 복음과 진리를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엡 1:13.
 - a. 진리가 복음이고, 우리가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골 1:5.
 - b.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사실상 진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참된 복음 전파가 진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행 8:4, 12, 30-35.
3. 높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우리는 각 사람에게 진리를 알기를 추구하도록 격려할 강한 부담이 있다—딤후 2:4.
 - a. 우리는 진리를 해석하고 전할 수 있을 정도로 진리를 연구해야 한다. 이것은 높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다.
 - b. 우리가 내적으로 진리로 충만하다면 복음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말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것을 외적으로 표현할 것이다—살전 1:8, 엡 6:19.
4. 오늘날 교회의 위임은 진리를 내용으로 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우리가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곧 높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막 16:15, 딤후 2:4.

사역의 말씀에서의 발췌

주님의 회복은 진리의 회복임

오늘날 온 땅은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분의 진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신성한 말씀인 성경은 세상에 완전히 열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주님의 진리를 완전히 알기란 불가능하다. 기껏해야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언어로 출판되어 온 땅에 보급되었다고 자랑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은 후에도, 성경이 어떤 언어로 쓰였든지 상관없이, 그 안에 있는 깊은 비밀들을 참으로 이해했다고 말하지 못했다. 그들은 나름의 문화와 철학과 전통과 관습과 윤리와 생활과 도덕에 따라 성경에 계시된 것들의 피상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성경 안에 있는 진리의 비밀들을 이해할 길은 없었다. 성경 안에 있는 진리의 비밀들은 매우 깊고 심오하다. 이 비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영적인 빛 비춤이 필요하고 또한 그것들을 파내기 위해 시간을 드려야 한다(비교 고전 2:10-14).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 있는 진리들은 약 이천 년 전에 완성되었지만, 그 후 천 년이 조금 넘는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자취를 감추어 버린 듯했다. 지난 몇 세기 동안에서야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열성적이고 세심한 연구를 통해 서서히 진리들이 다시 해방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회복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주님의 회복은 잃어버린바 된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진리의 회복이다. 그러므로 진리의 회복은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큰 기둥들 중 하나이다. 주님의 회복은 진리에 대한 지식의 회복에 달려 있다.

주님의 회복의 확산을 위해 진리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짐

신약은 거듭하여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더욱이 바울은 이 문제를 언급할 때, 우리가 진리에 대한 온전한 지식에 이르러야 한다고 거듭해서 말한다(딤후 2:4, 딤후 2:25, 3:7, 딤후 1:1). 이것은 우리가 단지 진리의 작은 부분이나 한 방면이 아니라 진리 전체와 그 모든 방면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은 또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한다(딤후 3:15). 이것은 성경 안에 있는 진리가 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터와 지붕 그리고 네 면이 완전히 갖추어진 커다란 건물과 같다는 것을 암시한다. 만일 우리가 오늘날 주님의 회복을 확산하고자 한다면 진리를 알아야 하고 진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조금이라도 치우치거나

특별한 기호를 갖지 않고 진리의 모든 방면을 알아야 한다.

진리는 많은 방면이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중요 항목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성경은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믿는 이들, 교회, 왕국, 새 예루살렘 등에 관하여 말한다. 성경은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창조와 사람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께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셔서 사람의 생명이 되심으로 사람이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그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영광 안으로 완전히 이끌리는 것으로 계속된다. 성경은 이 모든 문제들을 보여 주면서 동시에 믿는 이들과 단체적인 교회를 보여 준다. 이 단체적인 교회는 왕국을 이끌어 오고 그 궁극적인 표현인,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된다. 이 모든 방면들은 성경의 진리들 안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진리를 더 깊고 상세히 생각해 본다면 성경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두 방면, 곧 구속과 구원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속의 방면은 죄들의 용서와 깨끗하게 함과 의롭다 함과 화목과 하나님께서 받으심을 포함한다. 구원의 방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그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그분의 영광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다. 우리는 부지런히 이 모든 것을 배우고 이러한 것에 대한 지식을 얻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진리의 비밀들을 배움

위에서 다른 요점들은 단지 진리의 여러 다른 방면들을 보여 줄 뿐, 진리의 비밀들을 전체적으로 보여 주지는 않는다. 성경에 있는 진리의 비밀들은 무엇인가? 성경의 중심적인 비밀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중심이 되는 한 비밀이 있다. 이 중심적인 비밀은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분배하기 원하신다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삼일 하나님이며, 그분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해 그분 자신을 그들 안으로 분배하기 원하신다. 이것이 성경 안에 있는 비밀의 핵심이요, 정수(精髓)이다.

신성한 분배의 궁극적인 완결

오늘날 우리는 주님을 우리 영 안에 계신 그 영으로서 누리고 있다. 장래 어느 날,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 몸을 변형시키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 몸의 구속이다. 그때에 그분은 우리에게서 영광으로서 나오실 것이고, 우리는 또한 영광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빌 3:20-21). 그 후에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거하며, 천 년 동안 그분의 기쁨과 임재와 영광과 권위를 누릴 것이다(마 25:21, 23, 계 20:4, 6). 극도로 흥분되고 영광이 충만한 상태로 천 년이 지난 후에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궁극적인 나타남인 새 예루살렘에 도달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궁극적인 표현—하나님은 사람 안에 사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 안에 있는 중심적인 비밀이다. 이 중심적인 비밀은 삼일 하나님께서 세 부분으로 된 사람 안에 그분 자신을 넣는 일을 하시어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 곧 하나님은 사람 안에,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언어로 묘사할 수 없는 비밀이다. 새 예루살렘에 있게 될 날에 우리는 모두 끝없이 크게 즐거워할 것이기 때문에 제정신을 잃어 '미치게' 될 것이다.

비록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생활 안에서 이것의 축소판을 미리 맛볼 수 있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말하고 주님을 누릴 때, 우리는 제정신을 잃게 되고 안팎이 삼일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중심적인 비밀을 복음으로 전함

이런 까닭에, 우리는 어디서나 성경 안에 있는 중심적인 비밀의 진리를 말해야 한다. 이제는 평화와 번영이라는 피상적인 복음을 말해서는 안 된다.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평화를 갖게 된다고 말하거나, 사업이 잘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면 부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합당한 복음은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곧 삼일 하나님—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육체가 되셨고, 구속을 성취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부활하시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생명 주시는 영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육체 되심과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시어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 되셨다. 사람이 회개하고 그분 안으로 믿을 때, 즉시 그분은 사람 안으로 들어가셔서 사람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신다. 그분은 본질적인 영으로서 사람 안에 계시며 경륜적인 영으로서 사람 위에 계신다. 이런 방식으로 그분은 사람과 한 영이 되시며 사람 또한 그분과 한 영이 된다. 그 결과 사람은 참 기쁨과 만족과 인생의 참 의미를 얻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어디에서나 전해야 하는 높은 복음이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전파하며 말할 때, 본질적인 영은 우리를 내적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며 경륜적인 영은 우리를 외적으로 충만하게 할 것이다. 달리 말해서 우리의 안팎에 그 영께서 계시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과 한 영이 될 것이며 하나님으로 충만할 것이다. 이때에 우리가 사는 생명은 사랑과 빛과 거룩함과 의의 생명일 것이며,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 낼 것이다. 이것이 참된 영성이며, 참된 거룩함, 참된 승리이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왕국으로 확장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영광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비밀에 관한 진리의 완성이다.

주 예수님은 진리와 생명이심

주님의 회복은 주로 네 기둥인 진리와 생명과 교회와 복음 위에 세워진다. 기독교가 하락한 원인은 진리가 상실되었고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 자신이 진리와 생명이시라고 말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실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이 구절에서 실재는 진리이다. 따라서 주님은 자신을 생명과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진리와 생명은 모두 주님 자신이지만 주님의 서로 다른 두 방면이다. 그 차이는 진리는 밖의 정의와 설명이고, 생명은 안의 내재적인 내용이라는 점이다. 주님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시지만, 생명의 체험은 설명이 필요하다. 이 설명이 진리이다. 우리가 이 설명대로 주님을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주님을 생명으로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한다. 생명이신 주님에 대한 체험은 진리이신 주님 안에 담겨 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 분명하지 않고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한다면 주님을 생명으로 누릴 길이 없게 된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는 진리를 배우기 위해 시간을 충분히 들여야 한다.

진리를 앎으로써 생명을 체험함

주님은 우리를 어둠 속에 버려두지 않으셨다. 오늘날 주님의 모든 진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담겨 있다. 우리는 성경이 생명의 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성경이 생명의 책인 까닭은 그 내용 전체가 진리이기 때문이다. 체험이 많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알지 못하거나 성경 안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건강을 유지하려면, 슈퍼마켓에 가서 식료품을 사야 한다. 마찬가지로, 생명이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으로 가서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얻어야 한다. 성경 안의 모든 진리들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한 음식이다.

성경은 단지 지식의 책이 아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지식은 사실상 진리이며, 이 진리 안에는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 성경을 읽을 때 단지 문자만을 연구할 뿐 그 안에 담긴 내재적인 진리를

연구하지 않는다면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 독자들은 말씀의 문자를 통해 전달되는 진리를 보아야 한다. 우리가 진리를 보기만 하면 우리는 저절로 생명을 만지게 된다. 《라이프 스타디》를 출판한 목적은 말씀의 문자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돕는 데 있다. 그러므로 《라이프 스타디》를 주의 깊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분명 어느 정도의 체험을 얻게 될 것이다. 《라이프 스타디》는 참된 생명 공급을 얻도록 우리를 성경의 진리들 안으로 이끌어 준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은 진리와 생명의 회복이다. 우리는 모두 기독교의 하락이 기독교가 진리와 생명을 잃어버린 것에 기인함을 알고 있다. 기독교는 이렇게 진리와 생명을 상실한 결과,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많은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조직들을 만들었다. 주님은 어떤 조직이나 사람의 방법도 원하시지 않는다. 그보다 주님은 교회가 진리이신 그분을 알고, 생명이신 그분을 받아들이고 누리기를 원하신다. 교회의 전체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진리와 생명으로서 자라시는 것이다. 이것은 과일나무들에서 산출하는 생명의 과일들이 과수원의 전체 내용인 것에 비유될 수 있다. 과수원에서는 어떤 조직이나 행위를 찾아볼 수 없다. 우리는 과일나무들이 생명의 성장의 결과로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볼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이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들의 상황이어야 한다. 교회들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조직이나 사람의 방법들을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9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성장하도록 심고 물을 줌으로써 그들에게 공급하기를 원한다.

높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진리의 비밀을 배움

높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이들이 진리를 알기를 추구하도록 격려해야 한다는 강한 부담이 있다. 텍사스의 어떤 성도들은 집 안 곳곳에, 서재와 거실과 주방, 심지어 화장실에까지 《라이프 스타디》를 놓아두었다. 그들은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 시간을 잘 활용한다. 어떤 성도들은 차에서 메시지 테이프를 틀고 운전하는 동안 그것을 듣는다. 우리는 진리를 철저히 알기 위하여 이렇게 추구하는 영을 가져야 한다. 진리는 복음이다. 이것은 “사람 속에 있는 참된 것은 밖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라는 중국 속담과 같다. 만일 우리 속에 진리가 가득하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말함으로써 진리를 자연스럽게 밖으로 표현할 것이다. 어느 날 우리 모두가 꿈속에서도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를 말할 수 있게 되기 바란다. 이것은 우리가 《라이프 스타디》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완전히 조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밤에 꿈꾸는 것은 우리가 낮 동안에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을지라도 진리를 모른다면,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입을 열자마자 곧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다. 두세 문장을 말한 후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것이다. 결국 우리는 할 말이 없을 것이고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배워야 한다. 복음의 말씀이 진리이다. 진리의 말씀을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를 배워야 한다. 이제부터 우리가 진지하게 진리를 배우고자 한다면, 우리는 모두 두 달 안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상 진리를 말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참된 복음 전파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리를 말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합당한 방식으로 진리를 배워야 한다.

진리는 오늘날의 긴급한 필요임

오늘날 도처에서 진리를 필요로 한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진리를 모를 뿐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진리를 모른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진리를 많이 주셨다. 우리의 복음 찬송까지도 귀중한 진리들로 가득하다. 예를 들면 찬송가 731장(영한동번찬송가 1058장) 1절은 “만세 반석 여시어 나를 감취주시네 / 주가 흘린 피와 물 이중 죄를 해결해 / 죄 형벌서 구하고 죄의 능력 벗게 해(원문 참조)”라고 말한다. 이 찬송 시는 ‘피와 물’, ‘이중 죄를 해결해’, ‘죄 형벌과 죄의 능력’에 대해 말한다. 심지어 우리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도 이러한 말의 의미를 모

를 수 있다. 여기서 이중(二重) 죄를 해결한다는 말은 밖의 죄악된 행위와 내적인 죄의 본성을 해결한다는 의미이다. 피는 우리의 죄악된 외적인 행위들을 처리하기 위해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말하고(요 1:29, 히 9:22), 물은 우리의 내적인 죄의 본성을 처리하기 위해 주님께서 나눠 주신 생명을 말한다(요 19:34). 주님의 보혈은 죄악된 행위의 결과 응당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속하고, 그분의 생명은 죄의 본성의 능력에서 우리를 구원한다.

만일 우리가 이 찬송의 의미를 철저히 이해했다면 사람들에게 높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초청하여 이 찬송을 함께 부르고 그 후에 이 찬송의 의미를 그에게 설명해 줄 수 있다. 이것은 매우 좋은 복음 메시지가 될 것이다. 초대받은 사람은 이것을 들은 후에 복음의 내용이 탁월하고 비밀스럽다고 경탄할 것이다. 우리가 그에게 말할 때 성령께서 그 안에서 일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찬송을 그와 함께 다시 부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아마도 30분도 채 안 되어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멸망이나 '천당', 심지어 변영이나 평화에 관해서도 말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죄들 때문에 우리가 응당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옆구리에서 피를 쏟으시고, 죄의 능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물을 쏟으신, 만세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해야 한다. 단순하지만 탁월한 이러한 찬송과 말씀에 성령의 운행이 더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으로 인도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합당한 길이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 반절은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라고 말한다. 이 구절은 진리가 없으면 교회가 없다고 지적한다. 진리는 생명을 가져오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교회가 된다. 더욱이 오늘날 교회의 유일한 위임은 그 내용이 진리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진리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점을 말해 준다. 그 중점은 아버지, 아들, 영이신 삼일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 부분의 사람인 우리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시어,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되기 위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 자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진리이자 복음이다. 우리는 진리를 배워야 한다.(*주의 회복의 네 가지 큰 기둥*, 67-70, 79-81, 105-107, 191-194쪽)